

제159호

발행일 : 서기 2023년 5월 26일
창간일 : 서기 1969년 5월 1일
재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태영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우) 0243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홈페이지 : andongkimc.kr
E-mail : andongkimcu@naver.com

존경하는 전국의 종친여러분!



계묘년 새해도 어느새 산자락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일가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대종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송조돈목을 실천해 오신 종친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구한 역사의 명문거족으로 훌륭하신 선조님들 유지를 이어 왔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종회는 지난 3월28일 용산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5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결산·감사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주요 사업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진 임원선출에서 대종회장을 다시한번 맡아 우리 안동김문의 숙원사업인 물계서원 복설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는 종친여러분의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지난 회보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물계서원은 현재 추진위가 조직되어 활동중에 있고, 안동·예천지역구 김형동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서원관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 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산확보에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문중에서는 부지 마련을 위한 성금 모금운동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목표액에 가까운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안

동김문 후손들의 투철한 송조의식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금을 모아 주신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종친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핸드폰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와 소통을 하는 시대가 생활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천에 따라 대종회에서는 우리 안동김문의 상계에서 파조에 이르기까지 뿌리 교육을 위한 만화(웹툰)를 제작해 모바일 족보와 더불어 핸드폰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책자와 병행하여 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조사업에 어르신들과 젊은 종친들이 모두 참여 함으로서 화목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성 종친을 포함한 청장년회를 조직하여 대종회가 시니어들의 전유물이 아닌 남녀노소 모두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탈바꿈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는 대종회장 연임을 수락했습니다만 초심으로 종친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대종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를 다 하고자 합니다. 종친여러분의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 석 한

회비를 납부해 주신 임원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021.21.~2023.05.20.)

- ◎ 회장회비 2백만원
(翼)석한(대종회장, 광진)
- ◎ 부회장회비 3십만원(13명)
(密)재형(부회장, 영등포), (開)이경(파종회장, 파주)
(郡)준회(부회장, 파주), 재이(부회장, 강진), (安)홍기(부회장, 제천)
(都)정(수도권회장, 영등포), 태조(부회장, 부산), 옥수(부회장, 의성)
(提)규원(부회장, 괴산), 한용(부회장, 청주)
(翼)영수(파종회장, 의정부), 태용(부회장, 용인), 재교(부회장, 안동)
- ◎ 이사회비 2십만원(17명)
(郡)중회(강서), (都)희중(부산), 대회(의성), 운중(인천), (按)태운(세종)
(提)장응(증평), 대응(천안), 재삼(천안), 윤철(성북), 평응(천안), 덕응(공주)
(翼)태철(수원), 태신(서울), 태강(안동), 상묵(안동), 정회(부산), 근식(동대문)
- ◎ 통상회비 1십만원
(典)재욱(세종)
- ◎ 통상회비 (14명) 5만원
(郡)용조(목포), 지묵(강서), (提)상원(의왕), 상진(진주), (正)성립(춘천)
(翼)재술(의령), 논산종친회, 윤회(안성), 용일(영월), 기환(고양), 용회(창녕)
정묵(경산), 남회(강릉), 인식(영주)
- ◎ 통상회비(20명) 3만원
(郡)호영(평창), 홍묵(평택), 재향(강동), (副)규등(일산), (文)양회(대구),

- (都)우수(안양), 춘식(종로), (按)용호(마포), (書)세영(고양)
(翼)상묵(예천), 봉수(인제), 윤대(태백), 수돈(중구), 태관(청주)
경회(고창), 재근(인천), 정회(송파), 완식(영주), 홍식(제천), 정묵(하동)
- ◎ 통상회비(10명) 2만원
(典)경회(영등포), 태익(칠곡), (提)상선(이천)
(按)태언(송파), 정회(대전), 재균(대전)
(翼)대진(다산), 태위(용인), 용주(영주), 한영(진주)
- ◎ 찬조금
(郡)준회(파주 - 7십만원), (提)수도권총회(1십만원),
(翼)응식(서초 - 2십만원), 재석(대구 - 2십만원), 태훈(증평 - 1십만원)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시어 입금하시고 대종회 02-2244-371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비(부회장) - 30만원 • 임원회비(이 사) - 20만원 • 평생회비(개 인) - 30만원 • 통상회비(개 인) - 3만원 이상 • 찬 조 금(개인 및 단체) - 제한없음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종회

※(정정공고) 제158호 통상회비 3만원 / (翼)철회(예천)

안동김씨대중회 제56회 정기총회 성료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11시 안동김씨대중회 제56차 정기총회가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봉회 명예회장과 석한 대중회장을 비롯한 전국 경향 각지에서 260여 명의 임원 및 종친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3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된 정기총회는 일찍부터 멀리 지방에서 도착한 종친들의 방명록 접수와 회의자료, 참가 기념품(수건과 텀블러) 등을 받아들이고 속속 회의장으로 입장하였다.

이날 회의의 시작은 오전 11시 10분에 시작, 사회를 맡은 태영사무총장의 진행에 따라 성원보고와 대중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을 올렸다. 회의장 중앙에 부착된 제56회 정기총회 현수막을 바라보면서 장중한 애국가의 선율에 따라 국민의례를 마치고 참석임원과 종친들에 대해 파종회별로 소개가 이루어졌다.

충무공김시민기념사업회 법제 회장의 축사에서는 대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계서원 복설과 함께 충무공 김시민장군의 충렬사 건립에 안동김문 모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국회 강당에서 31일 시행하는 학술세미나에 종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대중회 태선 감사님은 감사보고를 통해 종종 재산중 개인명으로 있던 회곡리 임야와 미등기 상태의 회곡리 5건의 토지를 대중회 명의로

등기완료하고 여러 이름으로 등재된 부동산 명칭을 대중회 명의로 통일시킨 것을 2022년도의 성과로 꼽았다. 입장할 때 배포한 회의 자료를 통해서 2022년도 결산서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승인처리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

- 1) 물계서원 부지 확보를 위한 모금운동 전개 (약 2억 원)
- 2) 회곡리 상락재와 관리사 정비.
- 3) 최신 모바일 버전에 맞게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
- 4) 회칙 일부 개정 - 종사의 문호 개방을 위한 임원(부회장) 정원 조정.
- 5) 대중회장 연임 및 감사 연임과 선임.

이어진 차기 임원선출에서는 많은 원로 종친들의 요청으로 현 석한 회장의 연임을 회장단회의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이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함으로써 차기에도 석한 회장이 대중회를 이끌게 됐다. 석한 대중회 회장은 수락 인사말씀에서 다시 회장직을 연임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라고 하면서 당면한 물계서원 복원추진에 역점을 둘 것이며, 종친들에게 뿌리의식 함양을 위해 만화로 계보를 그려내 핸드폰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또 여성 종친을 포함한 청장년회를 조직하여 대중회가 시니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조직으로 구상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태선 대중회 감사의 연임 및 헌덕 감사 선임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하여 임원 선출을 마쳤다. 회의를 마친 후 폐회를 선언하고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들면서 대중회 발전을 기원했다.



2023년도 정기총회 찬조금 (₩12,650,000-)

- ◎ 1백만원 (익)석한 대중회 회장(광진)
- ◎ 3십만원(2명) (문영)문영공종회(안양), (부울경)부산·울산·경남종친회
- ◎ 2십만원(9명)
(개)이경 파종회장(파주), (도)원중 고문(동작), (대)태권 파종회장(光州), (按)형남 파종회장(강남), 태영(마천), (익)파종회(영등포), 용세 고문(당진), 재용 고문(서초), (판)춘교 대중회 부회장(인천)
- ◎ 15만원
(정)수선 파종회장(부산)
- ◎ 1십만원(46명)
(개)웅선 이사(인천), (군)파종회, 성묵 인천종친회장, 재이 부회장(강진), 양천종중, 경희(평택), 승남 이사(서초), 태동(평택), (전)대교 고문(고양), (문)재호 고문(도봉), (도)정 부회장(영등포), 준수(마포), 희윤(의성),

정중(의성), (대)태식 고문(보성), (제)파종회, 생원공종중, 백전종중, 태헌 문영공회장(제천), 태완고문(천안), (按)영만 고문(진천), 선회 고문(청주), 철회 고문(안양), 웅회 고문(군포), 태윤 이사(세종), 사관(여주), 윤회(청주), 선회(인천), (익)강릉주부종중, 목사공종중, 윤묵 이사(효소공 회장), 안산이목종회, 정묵 부회장(대구 회장), 용묵 (함열공 회장), 재훈 고문(의정부), 재영 고문(수원), 재남 고문(수원), 재교 (안동회장), 태용 부회장(용인), 영화 이사(대구), 태신 이사(중구), 태연(익원공 사무국장, 용호 (용인), 상묵(안동유사), 수인 이사(고창), 무명

- ◎ 5만원(3명)
(군)준회 파종회장(파주), (문)천만 (廣州), (익)재택 이사(논산)
- ◎ 3만원(145명) 기본 회비

대중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중회에서는 대중회보(종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답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신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우편, E-mail: andongkimgu@naver.com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제 출 처 : 대중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연 락 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2023년 안동김씨대중회 이사회 종료



안동김씨대중회는 3월 16일(목)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백범 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김석한 대중회장을 비롯한 고문, 부회장, 감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대비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석한 대중회 회장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규약 제5장 제21조에 의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태영 사무총장은 국민의례, 선조님 영령에 대한 묵념, 애국가제창, 참석 임원소개 순서로 진행을 했다.

회장 인사말씀과 태선 감사의 감사보고가 끝나고 이어진 순서에 의해서 2022년도 결산서와 2023년도 예산서(안), 2023년도 사업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종사의 문호개방을 위한 임원(부회장, 이사) 정원 조정 안의 회칙 일부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사회 결의 2023년도 사업계획서

① 물계서원 부지 확보를 위한 모금운동 전개에 대한 건.

물계서원의 역사와 복설 추진을 위한 서원부지 매입비 약 2억 원을 모금하기로 결의하다.

② 회곡리 상락재와 관리사 정비의 건.

상락재와 관리사 및 기타 수리건은 대중회에 위임하여 정비하기로 하다.

③ 대중회 홈페이지 새로운 버전 제작의 건.

최신 모바일 버전에 맞게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하다.

■ 대중회장 연임 및 감사연임 및 선임의 건

① 대중회장 : 회장의 임기가 금년 3월말로 만료되나,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회의는 물론 사업전체가 침체되고 당면한 물계서원 복설이라는 대업이 놓인 관계로 김석한 현 회장을 3년간 유임하자는 종친들의 제안에 따라서 만장일치 가결하다.

② 대중회 감사는 현 태선(按) 감사의 연임과 새로 내정된 (典)헌덕씨를 추천하여 총회에 승인을 받기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위와 같이 회의를 마치고 도시락으로 점심식사후 산회 하였다.

2023년 회장단회의 성료



안동김씨대중회는 3월 9일(목)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김석한 대중회장님 사육인 인성빌딩 4층 회의실에서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 대비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의장은 석한 대중회장이 주관하였고, 태영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대중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중에도 멀리 강진, 보성, 의성 등에서 참석하신 부회장님들과 “특히, 남웅 고문님, 영만 고문님 등 원로 종친님들의 참석을 환영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태영 사무총장은 회의 자료를 배포하고 22년도 결산보고와 23년도 예산(안) 설명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승인처리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① 물계서원 부지 확보를 위한 모금운동 전개 (약 2억 원)

② 회곡리 상락재와 관리사 정비의 건.

③ 최신 모바일 버전에 맞게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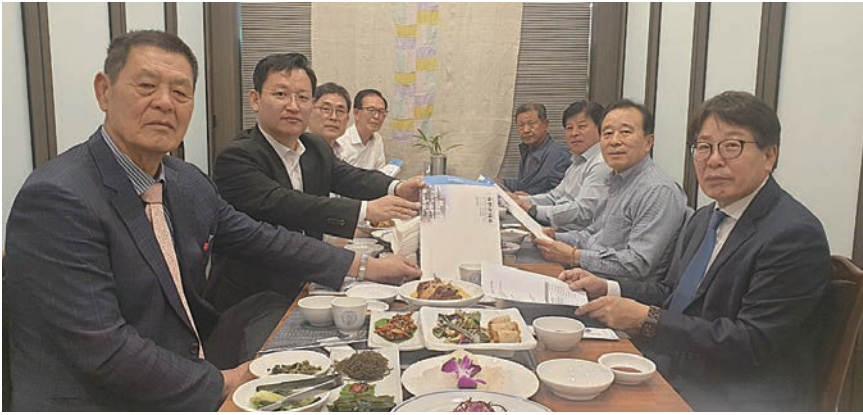
④ 종사의 문호 개방을 위한 임원(부회장) 정원 조정 건 (회칙 일부 개정)

이어서 회장 선임 건에서 대중회장 물망에 올랐던 (按)형남회장은 물계서원 복원 추진 등 사업 마무리를 위해 현 회장이 한 번 더 연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대승적인 결단으로 양보 하겠다는 발언으로 참석자 모두 박수를 보냄으로써 석한 대중회장의 연임과 아울러, (按)태선 감사의 연임, (典)헌덕씨를 새로운 감사에 내정하여 이사회 상정을 확정하였다. 한편 석한 대중회장은 물계서원 성금모금에 우리 후손들 모두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성금으로 3천만 원을, 봉회 명예회장도 1천만 원을 쾌척해 주기로 약속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봉화 명예회장은 물계서원 복원 등 안동의 큰 이슈가 있을 때에는 ‘재경안동향우회장’인 (翼)영식 부회장의 도움과 지원 요청도 필요하다고 했다.

회의를 마친 후 대중회장께서 회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고급 ‘보냉병’을 선물하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갈비탕과 파전 등 반주를 들면서 대중회 발전을 기원했다.

물계서원 복원 추진위원 간담회



2023년 4월 19일(수) 12시 여의도 남도사랑에서 안동김씨대종회 김석환회장은 물계서원 복원 추진위원회 조운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 8명을 초청하여 물계서원 복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12일 경북 예천의회에서 1차 간담회 이후 1개월만에 개최한 제2차 간담회에는 조운 추진위원장과 김홍년 부위원장, 이동섭 총무위원이 예천에서 참석하였으며 우리 안동김문에서는 영환위원을 비롯한 재영, 윤만, 태영 위원이 참석했고, 예천 지역구 김형동 국회의원이 특별히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앞서 대종회장은 바쁘신가운데도 멀리 예천에서 오시는 라 고생하셨다는 인사말과 함께 물계서원 복원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덕담과 김형동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원관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전체 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요청의 말씀이 이어졌다.

조운 위원장은 인사에 이어서 풍산김문의 조직이나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하여 적극 참여 하기가 어렵지만 물계서원 복원이 꼭 성사되기를 기원한다는 전갈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모두는 풍산김문의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역사성으로 볼 때 4위(김방경, 김구용, 김양진, 김응조) 배향 입장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토론에서 영환 위원은 서원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정보 및 토지주 물밑 접촉 등 각종 대장을 확인하며 현지 조사중에 있고, 2011년에 복

원한 문경의 근암서원 등 국비로 건립한 서원의 전례를 찾아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태영위원이 준비한 회의자료에서 전국의 서원에 배향된 고려 인물은 몇 분 안되는데 그중에서 충렬공(휘 방경)선조님이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인물임에도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한 것은 현지 유림과 문중의 조직력이 미약하기 때문임을 설명했다.

한편 김형동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 했다는 언론 기사와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물계서원 복원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했다.



▲근암서원 조감도

문경의 근암서원은 1669년(현종 10)에 홍언충과 이덕형의 위패를 배향하고, 1693년에 김홍민과 홍여하를 추배하였으며 이후 1786년에 이구·이만부·권상일을 추배하였다. 1871년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된 후 방치돼 오다가 산북면 서중리 부지에 2009년부터 3년간 국비 15억,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10억5000만원 총 30억원을 투입해 4천 766㎡에 사당과 전사청·강당·내삼문·동재·서재·누문·관리사 등 모두 9동으로 2011년에 준공했다.

성균관 · 향교 · 서원 전통문화 계승 · 발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성균관 · 향교 · 서원 지원법, 3월 29일 국회 문체위 통과
계승 · 발전 위한 국가 · 지자체 책무 규정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성균관과 향교, 서원의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서원 9곳 중 5곳을 보유하는 등 국내 유교 문화의 중심인 대구경북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균관 ·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성균관 · 향교 ·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나왔다.

김 의원은 '한국의 서원'이란 이름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도 한 전통서원의 고유 가치를 조명하고 서원 전통문화의 보존 · 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위원회 대안에는 정부가 성균관 · 향교 · 서원의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하기 위해 중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성균관 · 향교 · 서원전통문화발전위원회

를 뒤 중합계획의 추진 상황을 살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성균관 · 향교 · 서원 전통문화 계승 ·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 시민단체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내에는 성균관을 비롯해 234개의 향교, 800여 개의 서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순차로 넘어 제정되면 성균관 · 향교 · 서원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전통서원의 건축물, 그곳에서 이뤄진 교육, 제향 의례, 강학 전통 등은 앞으로도 전승돼야 할 가치가 충분히 체계적인 보존 ·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측에 대한 끈질긴 설득으로 성균관, 향교를 포함한 법안과 병합 통과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안동 병산서원

매일신문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물계서원 성금 모금 동참 안내문

존경하는 전국의 종친여러분!

산자락의 녹음이 짙어가는 성하(盛夏)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물계서원은 우리 중시조이신 충렬공(휘 방경)할아버지를 주벽으로 모셨던 서원으로 1661년(현종 2)에 학사(鶴沙)김응조(金應祖)선생이 경북 예천군 감천면 물계(勿溪)에 창건한 서원입니다.

그 뒤 1670년(현종 11)에 학사선생을 추향하고, 1697년(숙종 23)에 감천면 고방산자락(석송령 부근)으로 이건 하였으며, 1732년(영조 8)에 척약재(惕若齋)김구용(金九容), 허백당(虛白堂)김양진(金揚震) 두 분 선생을 추가로 배향하여 모두 네 분 선현을 제향하면서 충절, 예학, 도학의 정신을 이어 받으며 지방교육을 담당해 오던 중 1868년(고종 5) 전국 서원 철폐령에 의해 안타깝게도 훼철되고 말았습니다.

예천의 유림과 안동김문의 역대 회장님들께서는 물계서원 훼철이후 복원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진전을 보지 못하고 지역 유림에서는 전해오던 약간의 위토를 관리하며 물계서당을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연말 이 지역 국회의원, 군의회 부의장 등 서원 복설에 관심을 갖고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기초조사를 시작하면서 중앙정부 예산과 경상북도 예천군 등 지방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요처에 도움을 청하여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선결과제는 서원부지가 있어야 예산을 받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원부지 확보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다행인 것은 예천의 토지가가 산골이기 때문에 2천 평 정도 매입하는데 드는 예산이 약 2억여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천의 유림에서는 부지 매입비를 안동김씨 문중에서 제공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서원이 준공되면 우리 안동김문의 자랑인 근대 인물,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선생의 추가 배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천유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계서원은 사당, 강당, 동재, 서재, 전사청, 신문, 정문, 홍살문, 고직사 및 기타 부속건물 등이 있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문중에서는 부지 마련을 위한 성금 모금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목표액에 가까운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안동김문 후손들의 투철한 숭조의식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지파 문중과 종친 여러분들께서는 충렬공 중시조 후손의 긍지를 갖고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목표액이 모금되어서 부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시조(中始祖)이신 충렬공 선생과 현손이신 문온공 선조님의 혼백을 다시 서원 사우에 봉안되는 날은 안동김문의 자존을 높이는 날이 될것입니다. 아울러 백범선생의 혼백도 추향되기를 기원하며 끝으로 성금을 모아 주신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5. 22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 석 한

◎성금모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356201-04-238325 안동김씨대종회

※ 각 파종회장님, 총무이사님은 아래 소종중, 소문중에도 알려져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계서원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5.25 기준)

◎ 3천만원

(冀)석한 - 대종회장(광진)

◎ 2천만원

(冀)수원 판결사종중

◎ 1천만원 (3명)

(都)봉회 - 명예회장(강남)

(文英)문영공종회, (冀)파종회

◎ 5백만원 (3명)

(郡)준회 - 파종회장(파주)

(按)파종회, 형남 - 파종회장(강남)

◎ 1백만원 (11명)

(郡)성묵 - 인천종친회장, (大)파종회(보성)

(按)영만(진천), 철회(안양)

(冀)영수(파종회장, 의정부), 태신(중구), 재택(논산), 화자(대구),

성희(부여), 영화(대구), 강식(하남),

◎ 5십만원 (4명)

(都)정(수도권회장, 영등포), (大)태권- 파종회장(광주)

(冀)재남(화성), 진섭(대구)

◎ 3십만원 (5명)

(都)회수(중랑), 희운(대구), (提)재삼(천안)

(冀)동회(석한회장 子), (正)태형(성립, 춘천)

◎ 2십만원 (6명)

(都)시걸(부산), (提)덕응(공주),

(冀)하경(석한회장 女, 광진), 호묵(영화이사 子, 대구), 재진(당진),

종빈(영수회장 子, 의정부)

◎ 1십만원 (11명)

(郡)대용(용인), (文)재성(음성), (都)재수(의성),

(大)재남(나주), (提)운철(성북), (正)수진(남양주),

(冀)태진·태경·진경(석한회장 孫), 경민(영화이사 女, 대구),

철회(예천)

◎ 5만원 (2명)

(文)동묵(음성), (提)재응(광진)

◎ 3만원 (1명)

(按)태길(은평)

성금 모금 계좌안내

안동김문의 숙원사업인 물계서원 복원에 따른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 하오니 우리 후손들은 십시일반의 마음을 담아 다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모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356201-04-238325 안동김씨대종회

※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여 입금하시고
대종회 02-2244-371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공종회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아르떼채플 컨벤션 5층에서 안동김씨 문영공종회 제40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종원 120여명의 참석에 외빈으로 문온공파종회 윤만 회장과 대종회 사무총장인 태영(郡)총장과 내빈으로 대종회 석한(翼) 회장과 문영공종회 영만(按) 전임회장, 재영(翼) 명예회장, 상호(書) 고문 및 규원(提) 파종회장, 형남(按) 파종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문영공종회 태현(提) 회장은 인사로 코로나로 인하여 3년여 만에

제대로 거행되는 정기총회에 경향 각지에서 오신 종친들께 감사를 전하며 물계서원 부지비용 모금에도 많은 성원을 바라며 종친 분들의 건강을 바란다고 하였으며, 축사로 석한 대종회장은 안동김씨 대종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문영공 종회의 발전을 바라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에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하고, 이어진 영만 전임회장은 문영공종회의 모든 종원분들은 개성 임계면 가정리에서 지역 구장을 맡아보던 장씨가 동네에서 문영공 할아버님의 묘지석을 발견한 계기로 가정리 마산부락 동쪽 언덕에 계시던 할아버님(諱 恂, 1258~1321)의 유해를 600여년만인 1943년에 안양으로 모시게 되었음과 1949년 한식일에 백범 김구 선생께서 문영공 묘역 참배 후, 참석자들이 거둔 4만원의 성금을 종사에 사용토록 종중에 전하여 이를 계기로 문영공종회의 기초가 마련되었음을 잊지 말자고 설명하였다.

태현 회장은 주관으로 진행된 총회는 태철(翼) 총무이사의 사회로 종무보고 및 재무현황 보고, 의안상정으로 2022년도 결산 및 20123년도 예산안이 유인물에 의한 제안 설명으로 원안승인 의결되었으며, 보고사항으로 문영공 종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음을 보고하고 구성원들은 提, 按, 翼 3파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구성원들은 유인물에 간략 소개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문영공 종회의 발전을 염원하며 총회를 마치고 종회에서 준비한 식사와 선물을 나누고 아쉬운 발걸음으로 총회장을 나섰다.

숭의전 춘계대제 분헌관 준회 군사공파종회장



2023년 4월 2일(일) 11시 연천군 미산면 숭의전로 382-27. 숭의전(崇義殿, 사적 제223호)에서 김덕현(金德鉉) 연천군수를 비롯한 제관 및 참사자 2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고려왕실 제례 의식에 따라 엄숙히 봉행되었다.

숭의전은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과 함께 나라를 부흥시킨 현종, 문종, 원종 등 4분의 왕 위패를 모시고 있고, 배신청에 복지검, 홍유, 신승검, 유금필, 배현경,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김취려, 조충, 김방경, 안우, 이방실, 김득배, 정몽주 등 16분의 공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초헌관은 김덕현 연천군수, 아헌관은 신철수 평산시씨대종중회장, 종헌관은 왕윤식 숭의전감이 은은하게 제례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점시 ▶영신례 ▶관창예 ▶전폐례 ▶봉조례(진찬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공신 분헌례 ▶음복수조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다.

배신청에서는 16개 공신 중 15개 공신 문중에서 분헌관으로 참사한



가운데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독축에 맞춰 안동김씨대종회 부회장 김준회(군사공파종회장)가 첨의령 김방경 분헌관으로 헌작을 하였으며 안동김씨에서는 김영수 익원공파종회장, 전서공파 홍식 숭의전 보존회 감사 등 10명이 참제하였다.

한편, 연천군청에서 숭의전 제기 구입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는 전달과 함께 감사의 박수가 터졌고, 제례를 마친후에는 전사청과 양암재 밖 마당과 벤치에서 개성왕씨종중에서 제공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포근한 봄날을 만끽했다. 숭의전은 조선시대 1605년(선조 38년), 1727년(영조 3년), 1789년(정조 13년), 1868년(고종 5년), 1908년(순종 2년)의 다섯 차례에 걸쳐 개수와 중수를 하여 잘 보존돼 왔으나 한 국전쟁 중 건물이 전소했으며, 1971년 사적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 재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건물은 숭의전을 비롯하여 배신청, 전사청, 양암재 등 5동의 부속 건물이 있다.

세종시문화원, 제23회 김흔장군 연기대첩제 개최



2023년 5월 6일(토) 오후2시 세종시 연기대첩공원에서 원나라의 반란군인 합단적(哈丹賊)을 크게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김흔(金忻)장군의 역사

적 사실을 기리는 제23회 연기대첩제가 세종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기대첩공원에서 열렸다.

연기대첩제는 고려시대 대몽항쟁 전투 중 하나로, 1291년(충렬왕 17)에 금강 연안까지 내려온 원나라 반란군 합단적을 김흔(金忻)장군을 비롯한 한희유(韓希愈), 인후(印侯) 등이 격파한 싸움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2차전 승전일인 양력 5월 첫째 주 토요일에 축제를 진행한다.

연기대첩은 1290년(충렬왕 16) 1월에 만주 지방에서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칸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합단(哈丹)이 패배하자 무리를 거느리고 두만강을 건너 고려를 침범했다. 합단은 동북면에 침입하여 쌍성(雙城)을 함락하고 안변을 거쳐 양평, 원주, 충주를 지나 지금의 목천 연기현에 집결했을 때, 고려의 선봉대는 우익장 김흔(金忻)장군과 좌익장 한희유(韓希愈), 중익장 인후(印侯) 등과 같이 세종 정좌산과 원수산에서 합단적(哈丹賊)을 크게 무찔렀다.

이날 연기대첩제에는 계속되는 우중에 간소하게 진행되어 임창철



세종문화원장의 인사말과 경과보고에 이어 최민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최규진 세종시교육감의 축사가 있었다. 특히 최민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고려

시대 대표적 역사서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7대 대첩 중 하나인 연기대첩제를 세종시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축사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계속되는 빗방울속에 이어서 바로 헌화와 분향이 있었으며, 안동김씨를 대표하여 태헌(泰憲, 提) 문영공종회 회장과 석응(石應, 提) 문영공종회 재무이사가 분향과 헌화를 하였으며, 지역에서는 전서공파의 태영(泰永) 충무이사께서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이번 연기대첩 축제에는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힘쓰고 있는 타악그룹 판타지의 연주에 이어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이며,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전통무예인 '택견'을 기반으로 한 발광엔터테인먼트의 공연, 그리고 타악태권퍼포먼스 '비가비'의 국악과 태권도를 결합한 연희 공연, 전통 기점놀이와 같은 전통 무예 공연과 '퀸즈합창단'과 성악 앙상블 '라 클라쎄'의 특별한 문화 공연이 우중에 이어졌다.

- 문영공종회 총무이사 김태철 -

테너 김주완이 창작오페라 '사막 속의 흰개미' 열창



테너 김주완(사진)이 지난 3월 24일(금)과 25일(토) 마포아트센터 아트홀에서 현대성악 앙상블의 창작오페라 '사막 속의 흰개미'에서 공식 필 역으로 열창을 했다.

'사막 속의 흰개미'는 높은 곳에 지어진 100년 된 목회자의 고택을 무대로, 그들의 집 밑에 거대한 흰개미 떼가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으면서 두터운 성벽과 그들의 집을 부수는 이야기로 위선과 부패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18년 연극으로 한 차례 관객과 만난 바 있으나, 이번 공연은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창작오페라분야에 선정돼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이번 출연진은 테너 김주완(공석필 역), 소프라노 서예은(임지한 역), 메조소프라노 김보혜(에밀리아 역), 바리톤 박정민(공태식 역), 소프라노 조현애(윤현숙 역), 베이스 이두영(노윤재 역), 소프라노 홍예원(서재현 역)이 무대에 올랐고, 연주는 코리아콥오케스트라가, 합창은 위너오페라합창단이 맡았다.

음악은 작곡은 김주완이 맡았다. 김주완은 성악곡을 주로 작곡하며, 특히 우리말 가사의 아름다움, 내용적 서사와 서정미를 표현하는 데 탁월함을 자랑한다. 특히 그의 대표 가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는 소프라노 박혜상의 데뷔 앨범에 수록되며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최초로 발매한 한국 가곡이다. 테너 김우경, 소프라노 임선혜 등 많은 성

악가들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반주로도 연주된 인기곡이다.

작곡가 김주완은 "예상과 빗나가는 일들로 삶이 얼룩져도, 어둡지만 밝게, 무겁지만 가볍게, 낮설지만 익숙하게 인물들의 마음이 주는 내면의 소리를 음악으로 그려냈다"고 밝혔다.

테너 김주완 약력



- 중앙대학교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토레 프란카 국립음악원 졸업
- 미국 SMU 연주자 과정 졸업
- 체코프라하 국립극장 커르만 돈호세 데뷔, 오페라<라보엠>, <사랑의 묘약>,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라트라비아타> 및 창작오페라 다수 주역
- 국내.외 20여편 이상 오페라 주역

- 중앙대학교, 전남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 현, 조선대학교 초빙객원교수

테너 김주완(金周完, 1973생)은 서운관정공파 상호(詳浩) 대중회 고문님의 막내 자제이다. 형 주용(周瑢)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주)엔터테크 대표로 '라라클레식 모빌리티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으로 올드카 100여대를 구입하여 자동차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광이기도 하다.

상호(詳浩) 고문님은 한양대학교에서 공학박사(토목구조기술사), 포철엔지니어링 사장과 한양대 교수를 역임하고 각종 저서를 펴냈다. 현재는 적극적인 종사 활동과 선조의 사료 발굴, 집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2023년 강진 판서공이하 4위 세향 참례기

안동김씨역사연구회 김신묵

안동김씨역사연구회(이하 안사연)에서는 지난 4월 둘째 주일 (4.9 일)에 전남 강진군 토마리 영모재에서 봉행된 판서공이하 4위세향에 참례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전남 강진까지는 편도 약 400Km, 고속도로가 좋아져 5시간 이내에 간다고는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참례하려면 전날 출발하여 1박을 해야하는 형편이었는데 기왕 다녀오는 길에 우리 문중 선조님들과 관련있는 장소를 몇 곳 선정하여 답사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금년에 새롭게 취임한 안사연 회장(김윤만)이 취임 일성으로

제안한 계획중 하나로 안동 상락공, 강진 판서공, 안양 문영공 할아버지 세일사에는 모든 회원님들이 참례할것과 오고 가는 길에 여러 선조님들의 빛나는 얼과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유적지를 돌아보자는 의견을 실천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안동 김씨 문중이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으니 가능하면 15개 파조가 잠들어 계신 곳을 모두 가보자는 제안이 무게감있게 느껴졌는데 이번 강진 세향 참례길에 최대한 둘러보려고 계획에 반영하여 15인승 렌트카에 14명이 타고, 또 몇 분은 승용차로 함께하여 다녀왔습니다.

■ 백범 김구 선생 은거의 집(隱居家)

전남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569 (쇠실마을)

하행길에 처음 들린 곳은 전남 보성에 있는 '김구 선생 은거의 집'. 이곳은 일본 헌병 중위를 살해한 22세 백범 김구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고종의 사면으로 집행이 중지되었지만 석방은 되지 않자 탈옥하여 전국으로 숨어다닐 때에 이곳에 들려 45일 정도 은신한 곳입니다.

안사연 회원들을 맞아 주신 분들은 김구 선생이 머물던 당시 집주인 김광언의 증손자 되는 김태권 대호군공파 회장과 몇 분의 종인들이 기다리다 안내하면서 상세한 설명에 이어 여행객의 갈증을 달래주는 음료수(보성녹차)까지 제공하시는 친절을 베풀어주셨다.

김구 선생은 45일이라는 짧은 기간 머물었지만 감사한 마음에 해방 후 귀국하여 1946년 9월에 이곳을 다시 방문하니 그때는 김광언의 손자 김기옥이 만났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휘호도 써주고 마을사람들 모두에게 인사하였으며 그 소회를 백범일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현재 쇠실마을에는 김광언의 집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당시 은거하던 김구선생이 보시다가 김광언의 부인에게 선물로 주고가셨다는 '동국사기'를 여전히 보존하고 있고, 보성군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김구선생이 은거하신 역사적 사실과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기념관을 건립하고 추모비를 세우는 등 이 지역을 훌륭한 사적(史跡)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백범이 은거 하였던 김광언의 집은 그동안 수리 보수는 하였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안사연 회원 일동



▲라라클래식 김주용 CEO가 안사연 회원들에게 전기차를 설명하고 있다.

■ 강진 남미륵사 서부해당화

강진군 군동면에 남미륵사가 있는데 천만그루 철쭉과 서부해당화로 유명한 곳이며 2021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3대명소로 꼽히는 관광사찰입니다..

관광사찰이라는 말도 처음이고 오후 5시에 사찰 문을 닫는 특이한 곳으로 시간이 늦어 입장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아도 주변 전체가 붉은 핑크빛 꽃대궐을 이룬 화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부해당화(사과나 무속 낙엽 소교목)가 낮선이름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꽃사과라고 부르는 설명이었고 중국이 원산으로 4~5월에 핑크빛 꽃이 핀

다고 하니 다음기회에 제대로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 남미륵사 전경

■ 영암에 클래식 OLD-카 박물관 준비중

보성에서 기수를 돌려 영암으로 향하다.

영암에는 F1 경기장(국제자동차경주장)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클래식 OLD-카 박물관을 준비하는 종인이 있다해서 들렸습니다.

서운관정공파 전 이사장을 역임한 김상호의 장남 김주용 라라클래식 대표였는데 그는 현재 100여대가 넘는 클래식 OLD-카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 산업을 운영하는 CEO인데 이곳에 관련박물관을 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자동차연구동 공간에서 기존의 올드-카를 전기차化하여 계속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사업에 접목하면서 역사성이 있는 올드-카들은 박물관을 지어 전시하고자 하는 종인바 우리 안사연 회원들이 방문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사인정(舍人亭), 김구선생 친필 각자(刻字) 바위



행정구역은 장흥군으로 넘어가나 남미륵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유정난 이후 단종을 그리워하며 낙향하여 지낸 이조참판 설암 김필이 세운 정자인데 그 옆 바위에 김구선생의 친필로 새긴 바위가 있어 찾았습니다.

글씨는 너른바위 표면을 정리하여 네 글자를 새긴것은 아니고 자연

암반 상태 그대로에다 흠어진 형태로 새겼는데 과연 김구선생 친필인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으나 그렇게 전해온다는 문화재 설명입니다.

이렇게 1일차(4. 8일, 토요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우리는 마량리 모텔 숙소에서 짐을 풀고 근처 횃집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강진에 올 때마다 숙소, 식당 예약은 물론 비용 일부까지 성원하시는 대구면 공무원으로 재직하신 김재이 종인께서 올해도 역시 수고를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장흥 사인정과 그 옆 자연 석에 시계방향으로 새긴 第一江山(제일강산) 각자(刻字). 김구 선생 친필로 전한다.

다음날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작천면 토마리 永慕齋(영모재)에서 거행되는 제향에 참례하는 일

정인데 서둘러 도착하여 판서공, 군사공 할아버지뿐 아니라 남당포에서 순절하신 군사공과 김홍업 장군 묘소도 찾아 뵈었습니다.

■ 판서공이하 4위 세향 합동참례



코로나 상황으로 지난 3년간 세향이 조촐하게 치루어지는데 비하여 금년에는 많은 종친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영모재로 들어가는 농로길도 전에 비하여 많이 정리되고 포장되었으며 재실 주변도 깔끔해보여 흐뭇했습니다 관계

자들이 준비하고 마당에서는 차일과 의자를 설치하는 동안 우리는 판서공, 군사공 할아버지 묘소에 재배하고 비석도 살펴보면서 선조님들을 회상하였으며 다음 능선에 모셔진 김홍업 장군 묘소에도 재배하였습니다.

이내 시간이 되어 재실에 다시 모인 많은 종친들은 정성껏 차려진 세향을 함께 배례하면서 합동 참례를 받들었는데 이날 판서공 세향 집례는 재구(판서공종회 총무이사), 대축은 윤만(문온공파 회장), 초헌관은 태영(대종회 사무총장), 아헌관은 태현(문영공종회 회장), 종헌관은 신묵(문온공파 감사)가 수고하셨으며 이어진 충숙공, 상락군공, 군사공 합동세향은 초헌관 중회(군사공파), 아헌관 헌덕(대종회 감사), 종헌관 태용(익원공파 대종회 부회장)이 참여하였고 태원(군사공), 강우(전서공) 두 분이 집사로 애쓰셨습니다.



◀세향 분정에 참여한 종친들

세향을 마친 후 외부 캐터링 업체에서 차린 식사를 맛있게 먹고 준비한 기념타올도 하나씩 받아 흡족한 마음으로 강진을 떠난 우리는 가까운 월남사진 진각국사비로 향하였습니다.

■ 월남사지(月南寺址) 진각국사비(眞覺國師碑) 보물 제313호

강진 월출산 남쪽 월남사지(月南寺址)에는 창건주 진각국사(眞覺國

師), 즉 송광사가 배출한 16국사중 2조 혜심(慧諶)을 기리는 비(碑)가 남아 있는데 이 비석에 새긴 비문은 이규보가 지었고 김효인(金孝印, ? ~ 1253)이 썼다고 되어 있는바 김효인은 충렬공 할아버지의 부친으로 포항 보경사의 원진국사비 글씨와 영암 도갑사 비편 글씨 등이 현



존하는 선조님으로 한동안 진각국사비 설명에 그 내용이 누락되어 안사연 등에서 제기하니 추기(追記)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물 제313호 진각국사비. 앞면은 떨어져나가 식별이 어렵지만 비편 일부가 발견되어 국립광주박물관에 있으며, 후면 기록은 상당부분 남아있는데 후면은 최자가 짓고 탁연이 썼다.

■ 대호군공(휘 儒) 파조님 묘소 참례



안사연에서는 지난 2004년 5월에 대호군공파 세장지를 참례하였다니 어언 10여년만에 다시 찾는 감회를 느끼면서 대호군공파 재실에 도착하니 종친 몇 분이 우리를 반겨주시었습니다.

재실에서 멀지않은 선조님 묘소도 찾아 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잠깐의 인사를 위한 발길이지만 15개 파조님들을 모두 찾아 뵈겠다는 의지의 실천중 하

▲ 대호군공파 재실 앞에서 안사연 회원 일동.

나인지라 보람있는 순서였습니다.

강진 永慕齋(영모재)에서 봉행된 판서공, 충숙공, 상락군공, 군사공 합동참례에 다녀오면서 선조님들의 흔적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고 듣는 일정을 포함하여 진행한 1박 2일 답사기를 마칩니다.

내년 강진 세향에는 더 많은 종친분들이 참여하고 안사연에서도 더 좋은 일정으로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 대구 동화사 방장 의현스님 방문



▲ 동화사 방장 의현스님을 만나는 모습

안사연에서는 4.9일에 종친 김법혜 스님 주선으로 대구 동화사 방장 의현스님을 찾아 안사연 전회장 영환, 재영(익) 외 몇 분이 홍진국준비 재건사업을 말씀드리고 금석집침과 홍진국사비문을 증정하였습니다. 이는 안사연 숙원사업으로 문영공

께서 하였던 홍진국준비를 동화사에 재건하는 일을 말씀 나누는 자리로 법혜스님이 계속 추진하시는 등 노력이 이어져 성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동김씨 안렴사공파종회 제33차 정기총회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1시 청주시 오창읍(현령공 종회 사무실)에서 형남 파종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40여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현수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성원 보고와 형남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의례에 이어 형남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종회 2023년도 사업계획으로 경북 예전에 물계서원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니 안렴사공파종회 종원 여러분도 많이 참여 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오신 내빈으로는 재영 문영공 명예회장님, 태현 문영공 회장님, 태철 문영공 총무이사님이 참석하였고, 태현 문영공 회장님, 영만 파종회 고문께서 축사를 해주셨으며, 2022년 수입·결산 2023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형남 파종회장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회의에서 3년 연임으로 결정되었고, 두 분 감사 김윤희, 김재필님도 연임되었으며, 부회장과 이사는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 현수 사무국장 —

송천서원(松泉書院) 제향



2023년 5월 9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지리 117번지송천서원(松泉書院)에서 춘계 제향이 있었다.

이날 초헌관에는 태헌(泰憲, 提) 안동김씨 문영공종회 회장이 아헌관에는 남양인 홍준기(洪俊基) 청주향교 의전부전교, 종헌관에는 전주인 최병훈(崔炳薰), 대축에는 청풍인 김진우(金鎭宇) 청주향교 의전장의, 집례에는 김해인 김한덕(金漢德) 청주향교 총무장의,

봉향에 전의인 이인호(李仁浩), 봉로는 김태열(金泰烈, 按), 사준에 김윤희(金崙會, 按), 봉작에 김석응(金石應, 提), 전작에 김사부(金思富, 按), 직일로는 김선회(金璇會) 안렴사공파 전회장께서 수고하여 주셨다. 송천서원은 1695년(숙종 21)에 청원군 옥산면 송천리 송천마을에 김사렴(金士廉)을 주벽으로, 최유경(崔有慶), 이정간(李貞幹), 박광우(朴光佑), 이지충(李之忠), 조강(趙綱), 이대건(李大建)을 배향하고 후진을 교육하기 위하여 세운 서원이다.

1711년 '송천(松泉)' 이라고 사액되었으며, 1723년(경종 3)에 이제신(李濟臣)을 추향하고, 영조대에 최석정(崔錫鼎)과 이인혁(李寅赫)을 추향하고, 1798년(정조 22)에 남구만(南九萬), 박문수(朴文秀),李宗성(李宗城), 이효석(李孝碩), 김여량(金汝亮) 등을 추향하였다. 이 서원에서는 원생 15인과 자모생 15인을 뽑았다. 1871년(고종 8)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는데, 1975년에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현 위치에 복원하였다.

— 문영공종회 총무이사 김태철 —

정의공파 2023년 정기총회



안동김씨 정의공파 2023년도 정기총회가 김수선(金洙銑, 泰) 회장님을 비롯한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6일(일요일) 경북 안동시 육사로 205 패밀리뷔페 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몇 년간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기총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회장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경과보고 와 김용길(金容吉)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였으며 임원선출에서는 그동안 대종회 이사로 활동했던 김태인 종친이 개인사정상 더 이상 이사직 수행이 불가하여 김종식(金鍾植) 종친을 대종회 이사로 추천하였으며, 또한 파종회 부회장에 김석순(金錫順, 植) 종친을,

총무에는 김태화(金泰華) 종친을 선임한 후 기타 토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 정의공파종회 총무 김태화(金泰華) —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진식
(총령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ddundol@hanmail.net

진천군종친회 총회 개최



2023년도 안동김씨 진천군종친회 총회가 지난 3월12일 진천군 여성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60여명의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태형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 선조님 영령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 회장인사, 축사, 2022년도 예산·결산 순으로 진행하였다.

진천군종친회는 1983년 7월 31일 73명의 종인들이 창립하였으며 그간 종회발전에 기여한 17명의 종친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경로효친 모범자 4명에게는 효행 상을 주었고, 인재양성을 위한 종친자녀 38명

에게 1,0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진천군의 재정은 일정한 회비가 없고 종친들의 적극적인 성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이하다.

동묵(東默)회장은 인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여의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종회발전에 심혈을 기울리겠다고 다짐했다. 진천군수를 역임한 김정희 군수는 축사에서 회장, 총무의 노고를 치하하고 종친들의 화목단결과 상호협조로 타성 종인보다 모범이 되어야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참여하자고 하였다.

이어서 본회 3대회장을 역임한 영만 고문은 축사를 하기전 13년간 본회발전에 헌신 노력한 2대 영조회장이 작년 7월27일 작고함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였다.

그리고 안양의 문영공묘소와 백범선생의 승조정신, 충열공 증시조님의 일본정벌에 대한 이야기로 종인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또한 안동김씨대종회 김석한 회장의 3연임에 관하여 그간의 태산 같은 업적과 앞으로 물계서원 복원을 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총회를 마무리했다

— 진천군종친회 총무 김태형 —

철원 포충사 춘계 제향 봉행



2023년 3월 10일(금) 오전 11시에 철원 포충사 (원장 전현일)에서 요동백 충무공 김응하 장군 403주기를 맞는 춘계 제향을 봉행하였다. 임병순씨의 집례로 내빈소개를 마친후 진행된 이날 제향의 분정은 초헌관에 박경우 철원군 부군수, 아헌관에 정문걸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종헌관에 김태형 안동김씨 부사공과 철원종친회장 이 현작을 올리고, 묘사 이명규, 찬인 김영수, 대축 김태룡, 알자 최창배, 봉향 김재경, 봉로 김승립, 봉작 박은숙, 전작 전영희, 사준 오미현 등이 엄숙하고도 정갈하게 제례를 봉행 하였다. 이날 제향이 끝나고 포충사 전현일 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요동백 충무공장군을 기리기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마치고, 읍내에 소재한 아우라지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들면서 행사를 모두 마쳤다.

대호군공(大護軍公) 휘 유(諱 儒)향사 봉향



2023년 5월 3일 (음3월14일) 전남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산54번지에 모신 대호군공 파조님 외 15분의 시제를 제각에서 모셨습니다. 세일재 초헌관에 태권회장, 아헌관에 재귀부회장, 종헌관에 태식고문님, 집례에 태종이사, 대축에 태성, 좌집사에 제갑, 우집사에

태연님이 헌작하며 진행을 하였습니다.

20여분이 참석하여 정성껏 모시고 오랜만에 뵈 분들도 있어 반갑게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시제를 마치고 종중회의를 하였는데 수년전부터 죽촌리 상촌 마을에 있는 세장비를 제각 옆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얼마전 5월3일 안사연에서 윤만회장님, 태영총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대호군공 묘소를 탐방해 주시고 참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대호군공파 파종회 총무 재남 —

오창 종친 안동 충렬공 묘소 참배.

2023년 3월 18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거주하는 안렴사공파 종친일행이 충렬공묘소와 냉평국대부인 단소에 참배 하였다.

26명의 남녀노소로 구성된 참배단은 회장 김신희종인 및 이장 김낙희종인(010-6878-3265)의 인솔 하에 녹전면 능리에 와서 충렬공묘소를 참배 및 헌작하고 음수재 영정각을 둘러본 뒤 회곡동 냉평국대부인 단소에도 참배 헌작 하였다.



▲능동 충렬공 묘소 참배후 기념촬영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충렬사 건립 위한 학술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사단법인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법혜)가 이명수 국회의원과의 공동 주최로 3월 3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영의정·충무공 김시민 장군 사당인 충렬사 건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단법인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안동김씨대종회 김석한 회장과 문영공종회 김태현 회장 등 20여명의 종친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는 “천안이 낳은 임진왜란 진주대첩의 영웅 충무공 김시민 장군 위패를 모셨던 충렬사는 대원군에 의해 훼손된 후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아 애석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지역에 김시민 장군을 모시는 충렬사를 건립해, 그의 삶과 애국 충절의 뜻을 시민들에게 전해 귀감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확산돼 건립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는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은 이명수 의원은 김시민 장군 업적과 호국충절의 정신 계승을 위해 충렬사 건립 및 국가사적지 지정, 김시민장군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방안, 김시민 장군 생가와 연계한 충무공 문화벨트 구상 등을 목적으로 학술세미나

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회장 김법혜스님은 김시민 장군 유해지 정비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승격, 생가지 발굴조사, 김시민 장군 동상건립 등을 통해 김시민 장군의 업적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학술적 논의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석한 안동김씨대종회장은 축사를 통해 충무공 김시민장군의 진주성 승리의 역사는 영남을 보루로 호남을 지켜낸 우리 국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기려야 할 동서화합 민족 단결의 표상이라고 하면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무공 김시민장군의 정신은 조국의 평화와 자유변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산 교훈이며 우리나라의 남북으로 분단된 아픔도 크지만 영호남 동서 갈등의 분열을 극복하는 길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무공 김시민장군처럼 순국선열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조 강연은 김경수 청운대 교수가, 제1주제 <김시민장군의 충렬사 건립 및 사적 지정을 위한 제언>은 엄기표 단국대 교수(문화재 전문위원), 제2주제 <충무공 김시민장군 문화유산의 의미와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은 류호철 안양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종합토론에서 윤용혁 공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정석 공주대 교수, 강향란 동국대 겸임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한편 진주시에서는 지난해 말 작가 윤소영씨의 글과 그림을 통해 <진주대첩의 영웅 충무공 김시민>만화책을 펴내 시민들에 배포하였다.

함양 낙포영각 한식제례(咸陽 洛圃影閣 寒食祭禮)



지난 4월 6일 목요일에 경남 함양군 안의면 초동리 매각마을의 낙포영각(洛圃影閣)에서 익원공(翼元公, 諱 士衡) 할아버님의 한식절사(寒食節祀)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초헌관에는 영정각 이건을 주도한 충의참봉(忠義參奉) 요산공(樂山公, 榮珠)의 증손자 효회(孝會), 아헌관에는 (提)태헌(泰憲, 문영공회장), 종헌관에는 영수(榮秀, 익원공파종회장)와 태철(泰喆, 문영공 충무이사)의 독축 및 진행으로 제례를 봉행하였다.

향리에서는 재춘(在春)과 재두(在斗), 그리고 진회(進會)와 수회(秀會)가 그리고 파종회에서는 재영(在永, 고문)과 태용(泰龍, 부회장), 태신(泰信, 부회장) 그리고 재원(在源, 이사)와 태연(泰連, 사무국장)이 참제하였다.

매각마을을 떠나며 고창에 있던 익원공의 영정을 당시 일제의 핍박으로 영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영정각 이건을 주도한 요산공(樂山公) 영주(榮珠)의 송덕비를 살펴보고 이곳 함양군 안의면 입

향조인 익원공파 목사공계의 함열현감을 지낸 통정대부 김수익(金守義) 선조님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낙포영각(洛圃影閣)

다음은 매각마을 초입에 세워져 있는 영정각 이건을 주도한 요산(樂山) 김영주(金榮珠)의 송덕비 내용이다.

傾鼎摸匙 東道黔哉 弱周窮 北海孔融
경정모시 동도검재 약주궁 북해공융
施於不報 凡恢傳夫 遇者飽德 視此刻石
시어불보 범회전부 우자포덕 시차각석

정축 11월 욕은산인 립(浴恩散人 立)

김동은 · 동은 형제 효자비 안산 향토문화재 지정



▲효자 학생 김동려 지문 / 고종 12년(1875) 4월



▲효자 증동은대부 행사헌부감찰 김동려 지문 / 고종 12년(1875) 4월
명정 무자(1888년, 고종 25) 6월



조선 후기 효자 형제로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김동려(金東礪, 1789~1840), 김동은(金東殷, 1796~1857) 형제의 극진한 효행을 기리기 위해 1851년(철종 2) 10월 증손자인 김주묵(金柱默), 김현묵(金賢默)이 세운 비석이다. 안동김씨 익원공파 이목종친회 선산(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산107-3, 배나물)에 있으며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과 안산문화원 향토사연구소의 조사와 탁본작업 및 비문 해석을 통해 향토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 받아 2023년 '안산시향토문화재 제35호'로 지정하고 안산시에서 향토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조선시대 안산의 역사서인 「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에도 형제의 효행 기록이 수록되었으며 1875년(고종 12)에 효자 정려(旌閭)가 내려지고, 1888년(고종 25)에는 '통훈대부 사헌부감찰'의 증직 교지를 받았다. 정려 현판은 현재 안산향토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충렬공(휘 방경)의 19대손이며 익원공파 문정공(휘 질)의 넷째이신 대사헌공(휘 성동)의 11대손이며 증좌찬성(휘 이경)의 7대손이며 휘 우급(愚及)의 5대손이고 증추시영(時榮)의 아들이다.

■ 김동려 동은 형제 효자비

나라에 효자를 표창하는 법이 있는 것은 단지 효자만을 홀로 위한 것이 아니라 불효자를 권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어찌서 그러한가. 효라고 하는 것은 비록 순임금이나 증자라 하더라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니, 진실로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을 일삼음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효도를 능히 한 사람은 적고 능히 하지 못한 사람은 많으니, 격려하고 권장하는 방도를 얻으면 그 퇴폐한 풍속에서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마땅히 남이 모르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부터 먼저 표창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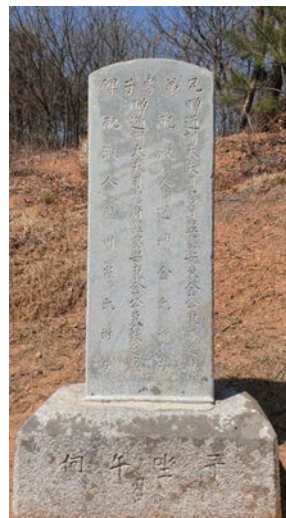
안산 서쪽에 효자 김동려, 동은 형제가 있으니 대개 궁벽한 시골 사람이다. 어찌 더욱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동려는 어려서부터 이미 황향(黃香, 동관한기東觀漢記 卷17 黃香)의 효행이 있었다. 장성하여서는 힘써 농사를 지어 아버지를 봉양하였으므로 몸에 편하고 입에 맞는 것을 갖추지 않음이 없었다.

병이 나니 북극성에 기도하고 손가락의 피를 드리니 목숨이 열흘간 연장되었다. 돌아가신즉 시신을 목욕시키면서 시수를 훑고 삼켰다. 염장을 함에 있어서는 가력을 다 기울였고, 동생 동은과 더불어 상제를 지키기를 매우 엄격히 하였다. 술과 고기를 일체 입에 대지 않았으며 묘 앞에 러막을 짓고 비와 눈을 피하지 않으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울부짖으니, 끝내는 몸이 쇠약해져 어머니 상기도 다 못 마치고 죽었다. 이에 비통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동은은 매일 반드시 저녁 잠자리를 보살피 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폈다. 어머니에게 종기가 나면 입으로 고름을 빨아 드렸고 눈에 병이 생기면 눈곱을 훑었다. 돌아가신 후에도 이와 같이 하여 몸가짐을 깨끗하게 가짐에 힘쓰고, 그 상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형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하늘로부터 난 성품이며 진실로 이른바 난형난제라 할 것이다.

또 흉년이 들면 형제가 미곡을 내어 족척과 이웃을 구제하였으니 이것도 역시 효성이 미루어 나타난 것이다. 석류(錫類)의 이치가 과연 어긋나지 않아서 동은의 아들 광의도 역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고 변을 맛보았으며 하늘에 기도하고 료묘살이를 하여 나아주신 바를 욕되게 하지 않았으니, 한 가문에 3명의 효자가 나온 것이 어찌 기울어 가는 세속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동려가 살아 있을 때부터 사람들의 공의가 일제히 일어나고 유자들과 향당의 장침이 쌓여 책을 이루어 정문을 세우고 표창할 것을 기대하였는데, 다만 이를 위에 올려서 알릴 방도가 없는 까닭에 장차 묻혀서 없어지려 한즉, 이에 사람들이 그 마을에다 정려를 지어 표창할 원대한 계책을 세웠으니, 우리 군 인사들의 효를 넓히고자 하는 뜻이 지극하다 하겠다.



이 정려를 지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며 말하기를 “동려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탁행이 능히 사람을 감동시키는가. 이름이 장차 이 려와 더불어 계속될 것이다. 우리들도 또한 사람인지라 어찌 문득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고서 다투어 서로 본받을 것을 사모하고 각자 스스로 면려하여 모든 사람들이 순임금과 증자가 되면 이 려가 풍속을 교화시키는 것이 어찌 적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을 주장한 것이 누군가 하면 사인 김정진과 김달영이다. 내가 한 지방의 풍속을 교화할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강제로 이 일을 기록하라고 시키니 감히 문장이 짧은 것으로 사양하지 못하였다.

신해(1851년, 諱 광의 32歲) 10월 수원(水原) 이등(李等) 몸소 짓다.

—효자 김동려 7대손 형식(안산 이목종친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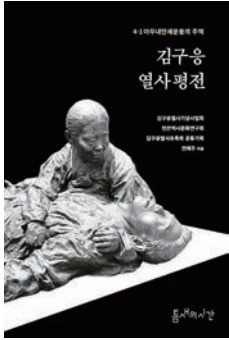
역사문화 탐방 및 수련회 참가 안내

- 주 최 : 안렴사공파종회
- 일 시 : 8월 19일(토) ~ 8월 20일(일) 1박 2일
- 장 소 : 안동 · 오창 · 진천 선대 유적지
- 대 상 : 안동김씨 파를 초월한 종친 누구나 (가족단위 참여 가능)
- 내 용 : 안동김씨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송조돈목

- 신청인원 : 150명
- 신청마감 : 6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안렴사공파종회 사무국장 김현수
연락처 : 010-5268-3239 (문자 신청 가능)
- 숙 소 : 인문정신연수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안동김씨 안렴사공파종회 회장 김형남

“천안 아우내 만세운동 주역 유관순 아닌 김구응 열사”



[서평] 전해주 성공회신부가 쓴 《김구응 열사 평전》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우내(병천) 장터 만세운동 주역은 유관순 열사가 아닌 진명학교 교사였던 김구응 열사였다.”

전해주 성공회신부 글·김구응열사기념사업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김구응열사유족회가 기획한 <4.1 아우내만세운동의 주역, 김구응 열사 평전>(틈새의 시간, 2022년 4월)에서 강조한다.

이 책은 독립운동에 대해 알려진 사실 너머의 숨겨진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까. 우리의 역사에서 유난히 유관순 열사로만 강조해 왔던 4.1천안 아우내 만세운동 주역이, 실제 계획하고 주동한 사람이 진명학교 교사인 김구응 선생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일제 강제병합 국권침탈에 항거한 일본 도쿄 유학생들의 1919년(기미년) ‘2.8독립선언서’에 이어 조선 내에서 ‘3.1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전국에서 독립만세운동으로 타올랐다. 그해 4월 1일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천안 아우내(병천) 시장에서도 학생, 주민 등 조선 민중들이 집결해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총과 칼을 앞세워 독립만세를 외친 민중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다. 그 과정에 김구응 선생이 적살되고, 아들의 주검을 목격하고, 슬퍼하는 어머니 최정철 열사도 죽이는 그 현장의 실제적 진실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책이 전해주 성공회신부의 <김구응 열사 평전>이다.

전해주 신부는 사제로 있던 교회의 옛 자료를 정리하다, 4.1아우내만세운동에 대해 회고록을 쓴 강애단 신부의 글을 봤고, 거기에서 김구응 진명교사 선생을 접하게 된다. 전 신부는 여기에서 아우내 만세운동을 주동한 사람이 유관순 열사가 아닌 김구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동안 나는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이 주역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접한 새로운 사실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 본문 중에서

그는 김구응 열사를 연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신문기사, 그의 공적을 알리는 역사적 사료 등의 자료를 모았다.

전 신부는 진입로조차 없는 김구응의 묘. 지자체와 정부에서 공을 들인 유관순 열사 묘에 비해 너무 초라했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김구응 열사는 당시 지역의 유지로 아우내에 첫 근대식 학교인 청신의숙을 세웠다. 천안 병천 진천면에서 진명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학생과 주민들을 모아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당시 김구응 열사의 나이는 32세였다. 열사는 진주대첩을 이끈 김시민 장군의 12대 손이다. 책은 ‘김구응, 그는 누구인가’ ‘성공회와 진명학교’ ‘그날의 함성’ ‘아우내 만세운동,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 4개의 주제로 다뤘다.

특히 영국의 성공회가 충청지역에 안착된 배경, 작은 지역인 아우내 지역의 상업과 근대식 교육, 유지들과 교육자들의 독립운동을 위한 상호부조 등도 상세히 다뤘다. 일찍이 김병조 선생이 1920년 6월에 펴낸 <한국독립운동사략>과 같은해 12월 펴낸 박은식 선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도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을 이끈 주역을 김구응 열사와 그의 모친 최정철 열사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들 묘자가 묻힌 이유는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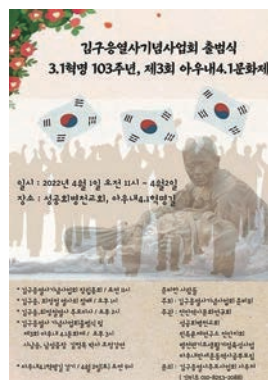
당시 만세운동으로 현장에서 사살돼 재판 등 기록이 없고 사진 한 장, 남아 있지 않다는 점과 후한이 두려워 가족마저 흩어져 쉬쉬했다는 게 그 첫 번째 이유이다. 하지만 왜경에 잡혀 조사만 받고 나오더라도 기록이

있어 애국지사라는 칭호를 받고 독립운동가가 되는 현실에서, 이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유관순이라는 인물에 대한 영웅화 작업과 이를 상품화한 아우내 지역의 정서로 인해 김구응 열사의 후손들은 독립유공자 가족으로서 받는 국가적 혜택은 차지하고 유관순 열사에 견주면 거의 무시에 가까운 무관심과 처우에서 비롯한 서운함과 억울함을 안고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야만 했다.” - 본문 중에서

이 책 말미에 김구응 열사의 후손 김운식 선생이 쓴 글이 가슴을 저밀게 한다. 증조할머니(최정철 열사)와 아들(김구응 할아버지)이 아우내 장터에서 같이 순국하면서 평화롭게 살던 일가가 풍비박산이 났다는 처절한 삶 때문이다. 저자 전해주 신부는 서울에서 초중고를,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다. 직장생활을 하다 늦게 성공회에 입문해 49세에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됐다. 충남 병천에서 사제로 지내며 자연스레 김구응 열사를 접했다. 김구응 열사의 자료를 모아 <성공회 병천교회의 3.1아우내 만세운동에 대한 기여>(2006년 성공회대 석사논문)를 썼고, 이 작업을 인연으로 2023년 4월 1일 <김구응 열사 평전>을 펴냈다.

■ ‘김구응열사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출범



기념사업회 출범식은 ‘3.1혁명 103주년기념 제3회 아우내 4.1문화제’와 함께 진행됐는데 오전 11시 성공회 병천교회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어 낮 1시에는 병천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최정철, 김구응 열사 묘소 참배를 한 뒤 2시에는 성공회 병천교회에서 별세성찬례(추도예배)를 가졌다.

김종수 기념사업회 초대회장, 성공회병천교회 장동윤(미카엘) 신부, 이용길 천안역사문화회 연구회장, 유관순열사정신계승회 정준갑 부회장, 김선태 천안시 전 의원, 김운식 유족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이번 기념사업회 출범에 산파역을 맡았던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이용길 회장은 축사에서 “아우내란 여러 물길이 어우러져 흘러가는 냇물을 이르는 순우리말이다. 4.1아우내독립만세운동은 역사의 물길을 따라 면면히 흘러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천안역사문화연구회의 주관으로 성공회병천교회를 출발해 아우내3.1만세공원→김구응·최정철 묘소→구미산3.1혁명기념비→60열사사당→유관순열사당→매봉산봉화대까지 걷기대회가 이어졌다.

■ 김구응(金球應) : 1887.7.27~1919.4.1

독립운동가(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주도), 기독교계 학교 교사(청신의숙, 장명학교, 진명학교 교사역임), 호는 죽계(竹溪), 충청남도 천안사람으로 안동김씨 제학공파 후손이다.

1919년 4월 1일 홍일선·김교선·한동규·이순구·조인원·유관순 등이 갈전면(葛田面) 아우내(병천)장터를 기하여 일으킨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77년에 대통령 표창을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12대손으로 김시민장군이 태어난 병천 가전리에서 대대로 살았다.

〈김구응선생 가계〉

제학공- 고- 맹림- 철균- 수형- 언묵- 석-충갑- 시민(충무공)- 치(남봉)- 득신(백곡)-천주- 가행- 한창- 서원- 이진- 유급- 우년- 정호- 상목- 구응(球應)

동정

■ 군사공파 김종묵 장군 육군 소장 진급



국방부는 2023년 4월 17일 전반기 장군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에서 학군단 32기 출신 김종묵(金宗默) 준장을 육군 소장에 진급시켜 제39보병 사단장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묵 소장(진)은 경기 평택 출신으로 청주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학군 32기로 임관해 53사단 125연대장, 수도군단 작전참모를 거쳐 2021년 11월 장군으로 진급한 뒤 6군단 참모장, 합참 전비검열실 차장 등 군의 주요 직책을 수행해왔다.

김 소장은 학군 32기 중 최초 사단장으로 보직 예정인 가운데 ‘연합 합동작전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우수자로 국가관이 투철하고 품성과 리더십이 우수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장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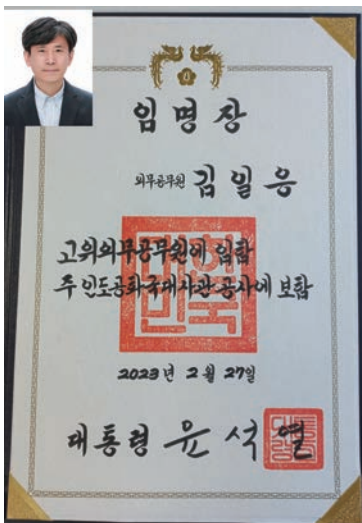
김종묵 소장, 39사단장 취임식

육군 39사단은 지난 4월 20일 제41대 사단장에 김종묵 장군이 취임하고 신희현 2작전사령관(대장) 주관으로 사단 연병장에서 취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김종묵 신임 사단장은 취임사에서 “전·평시 임무에 집중하고 실전적으로 훈련하여 현장에서 행동화 하는 부대를 육성하겠다며,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 부족함을 채워주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충무부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묵(金宗默, 1971生) 사단장은 평택출신으로 보명(譜名)은 상묵(尙默)이다. 군사공파 자산공(慈山府使 휘 允精)의 후손이며 고 김진희(金軫熙)의 차남으로 1994년 청주대학교 137학군단(ROTC) 32기로 임관했다.

■ ‘미라클작전’의 영웅 김일웅 공사참사관
주인도공화국 대사관 공사에 임명

미라클 작전의 영웅, 김일웅(金日應, 1969생) 외교관이 2023년 2월 주인도 공화국 대사관공사에 임명되었다. 김 공사는 안동김씨 제학공파 사간공(휘 顧)의 차남 중렴(仲廉)의 후손으로 아버지 상원(相元)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용인에서 태어났다.

김 공사는 안양고등학교를 나와 한국 외국어대에서 불어를 전공하고 외무고시(제33회)에 합격했다.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외무부에 들어가 프랑스, 아프간 지방재건팀, 뉴욕(주유

엔 대표부), 이라크, 벨기에 등에서 근무했다.

아프가니스탄 공사 참사관으로 있던 김일웅 공사는 2021년 아프간 주둔 NATO 및 미군 철수가 진행됨에 따라 치안이 악화되고 탈레반 치하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390명을 구출하는 ‘미라클작전’을 성공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정부에서는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했고, 지난해에는 자랑스러운 외대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안동김씨대종회보 제153호 16면 참고]

■ 전북 한우협동조합장 김희동 종친 취임



3월 17일 김희동(초명 金泰一, 1961생) 종친이 전라북도 한우협동조합장에 취임했다.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어 이날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이다.

김 조합장은 취임식에서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적용하여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도 제고로 국내 한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자연 친화적인 깨끗한 목장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최고의 품질 및 위생 안전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조합장은 군사공파 후예로 정유재란때 강진 남당포 전투에서 순절한 의병장 김흥업장군의 후손으로 일찍이 선대에서 정읍 태인으로 이거하여 터전을 잡았다.

전북과학대교를 졸업한후 신태인청년회의소장, 태인라이온스클럽회장, 신태인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농업회사법인 (유)친환경대현그린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 서운관정공파종회 김각영 회장 취임



서운관정공파종회는 2023년 5월 1일부로 전임 덕영(德永) 회장 후임으로 김각영(金珪永, 會行)회장을 신임 파종회장에 선임하였다. 1944년생인 김 신임 회장은 다년간 자동차 사업을 경영하면서 파종회 부회장과 대종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한편 전임 덕영(德永, 會行)회장은 대종회 고문으로 추대하고, 규상(圭相)파종회 부회장을 대종회 이사로 천거하여 기존의 상호(詳浩, 植行)고문과 정수(正洙, 默行)이사와 함께 대종회 종사 활동을 하게 되었다.

■ 정의공파종회 김수선(金洙銑, 泰行) 회장 취임



정의공파종회는 작고하신 전임 태석 회장 후임으로 김수선회장을 신임 파종회장에 선임하였다. 1956년생인 김 신임 회장은 국가유공자이신 김종희씨의 장남으로 LG산전을 거쳐 (유)오티스 임원으로 정년퇴임하고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다. 김회장은 안동김씨대종회 당연직 부회장에 선임되었다.

■ 서예가 무호(霧湖) 김수길(金洙吉) 대구종친회장 취임



대구종친회는 2023년 4월1일부로 김수길(金洙吉, 泰行) 회장을 전임 (翼)정묵(正默)회장 후임으로 대구종친회 21대 회장에 선임하여 안동김씨대종회 당연직 부회장에 추대되었다.

1950년생인 김 신임 회장은 문온공파 사인공계 후손으로 의성 다인에서 출생하여 조부 재영(在漣), 부 인회(仁會)로 이어오면서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중어중문학과 출신인 김회장은 한국미술협회 회원이면서 국제서법에술연합한국본부 회원으로 한중서법교류전을 8차례 갖는 등 크고 작은 전시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대구팔공미술협회 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KIST 송곡과학기술상을 받은 김태일 성균관대 교수



◀김태일(金泰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2023년 2월 10일 서울 성북구 KIST 본원에서 열린 제57회 KIST 개원기념식에서 김태일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가 제25회 송곡과학기술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바이오 전자소자 전문가로, 최근에는 생체모방 바이오 전자소자인 ‘거미 감각기관을 모사한 초고민감도 센서’ 구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거미의 진동 감각기관 주변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필요한 신호만 전달할 수 있는 점탄성패드(cuticular pad)기관을 모사한 소자를 세계최초로 개발했다.

이를 바이오 전자소자에 적용해 바이오 전자소자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노이즈를 제거했으며, 초고민감도 센서가 노이즈 없이 동작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 외에도 거미의 진동감각기관 모사 센서의 센싱 메커니즘을 밝히고 센서 최적화에 필요한 구조 연구를 진행해 생체모방 전자소자 및 차세대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대한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김태일 교수는 “작은 곤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연구는 곤충의 진동흡수 기능을 모사해 물리적 힘의 진동수 선택 흡수가 가능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충전소음자동차 진동 등 실생활의 다양한 소음과 진동을 선택적으로 흡수·제거하는 신소재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신소재를 활용한 생체모방 바이오전자소자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송곡과학기술상은 KIST 초대 소장과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송곡(松谷) 최형섭(1920~2004) 박사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신소재 개발이나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자가 받는다.

“거미 다리가 돌연사 막는다” 자연 모방한 바이오 센서 송곡과학기술상 수상한 김태일 성균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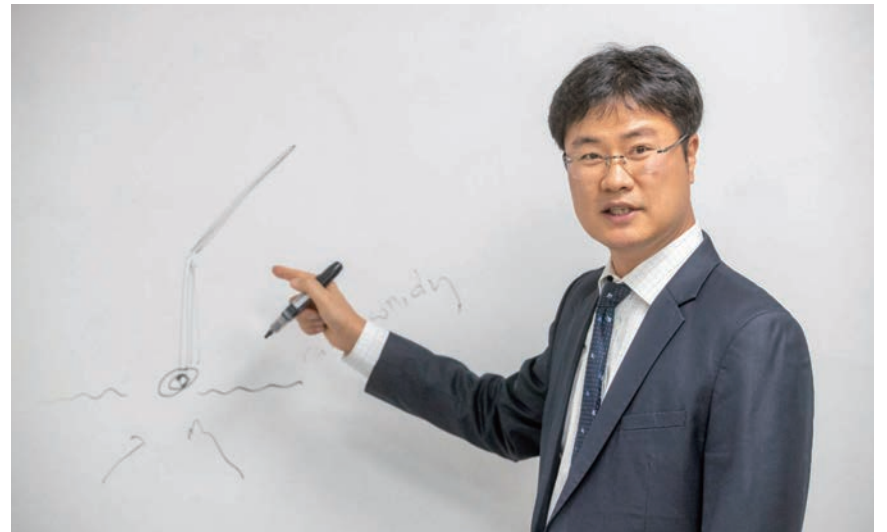
- 거미 다리의 감각 모방해 바이오 센서 개발
- 비바람 진동 버리고 먹잇감 잡힌 신호만 감지
- 센서도 잡음 차단하고 필수 생체신호만 전달
- 돌연사 막고 파킨슨 환자 치료에도 도움 가능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32년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란 책에서 당시 주류 이론이던 천동설을 배격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갈릴레이의 ‘디알로그(Dialogo · 대화)’처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서울 성북구 본원에서 개원기념식을 갖고 김태일(46)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에게 제25회 송곡과학기술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KIST 초대 원장과 제2대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고 송곡(松谷) 최형섭 박사가 기탁한 기금으로 1999년 제정됐다. 금속공학자이자 과학행정가였던 고인을 기려 신소재개발 연구와 과학기술정책관리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신소재개발연구에서 수상자를 내는 순서였다.

김태일 교수는 거미 감각기관을 모사한 의료용 바이오 센서를 구현한 공로로 수상했다. 금속이나 반도체 같은 전통적인 신소재가 아니라 바이오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한세광 포스텍 교

수가 당뇨 진단용 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 성과로 수상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김태일 교수는 시상식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신소재 연구는 생명과학과 화학공학, 기계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융합하는 추세”라며 “특히 자연을 모방해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 거미 센서가 인명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심장에 생기는 부정맥과 같은 문제는 예측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특정 신호만 감지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로 인한 돌연사를 막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방법은 움직임을 멈추고 측정하는 방법이라 지속적 측정이 어려웠다. 또한 뇌파도 노이즈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파킨슨병이나 자폐 환자에서 생기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할 때만 약물을 투여하고 전기 자극을 주는 시스템과 연결해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세상 떠난 선배 연구자에게 논문 헌정

김태일 교수는 2014년 최만수 서울대 교수와 함께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을 1년 전 학회 참석차 미국 하와이에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41세에 세상을 떠난 서갑양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에게 헌정해 화제가 됐다. 고(故) 서 교수가 생전 아이디어를 내고 상당부분 연구를 진행한 것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미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발행하는 ‘테크놀로지 리뷰’지가 2004년 ‘올해의 젊은 과학자 100인’ 중 한명으로 선정할 정도로 세계적 주목을 받던 과학자였다. 도마뱀 발바닥을 모방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태양전지를 옮기는 접착테이프를 개발했으며, 딱정벌레의 날개를 모방해 찌찌이라고 불리는 벨크로보다 접착력이 3배 강력한 접합 장치도 만들었다.

■ 김태일 교수

1977년생으로 도평의공파 천사(川沙) 김종덕(金宗德) 선생의 8대손이며 대구화랑 김항회(金杭會)씨의 장남이다. 2003년 성균관대 화학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3년까지 미국 일리노이대의 존 로저스 교수 실험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세계 양대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잇따라 논문을 발표했다. 2013년 생쥐의 뇌에 초소형 LED를 심고 빛을 발생시켜 도파민을 분비하는 연구로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했다. 그 해 한국으로 돌아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가 되고, 이듬해인 2014년 거미의 진동 감각을 모방한 바이오 센서를 개발해 네이처에 논문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거미에서 잡음 신호를 없애는 원리를 찾아 바이오 센서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결과를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현재 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와 휴먼ICT융합학과 겸임 교수도 맡고 있다.

— (都)수도권총회 총무 김우회 —